

좋은 사람들의 좋은 글을 보냅니다..
오늘의 아침편지

★ 언제라도 봄 ★

우리 산, 우리 들에 피는 꽃
꽃 이름 알아가는 기쁨으로 새날을 시작하자
회리바람꽃, 초롱꽃, 돌꽃,
벌개덩굴꽃, 큰바늘꽃, 구름체꽃
외우다 보면 웃음으로 꽃물이 드는 정든 모국어
꽃 이름 외우듯이 새봄을 시작하자
꽃 이름 외우듯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첫 만남을 시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 이해인의《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중에서 -

* 산에 들에 꽃이 피는 새봄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에, 표정에 웃음이 피는 새봄,
당신과 나 사이에도 새웃음이 피어나는 듯합니다.
맑고 고운 향기로 유쾌한 팡파레를 울리는
당신과 내가 있어 오늘도 봄입니다.
언제라도 봄입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 이 그림을 내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요

REMEMBER 20140416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광양사랑의교회

<http://kysarang.org/>

한국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로 이 땅을 덮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제하며 전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전국을 경험하며
전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 속 같은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가서 주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세요.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중 하나인
광양사랑의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순천노회 광양남시당 소속
설립일 : 2004.4.12
545-881 전남 광양시 중동 1617-10번지
<http://kysarang.org/> www.smileman.info
☎ 061-793-1294(교회) / 794-7130(사택)
담임교역자 : 웃는사람 라종렬목사 (010-5686-3626)

• 광양사랑의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
인 공동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꿈꾸시며 성령님
이 충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광양사랑
의교회의 꿈입니다

• 광양사랑의교회는

모든 성도가 매일성경(성서유니온)목상지로 매일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
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같은말 같은마음 같은뜻 같은열매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
전히 합하라(고전1:10)

• 광양사랑의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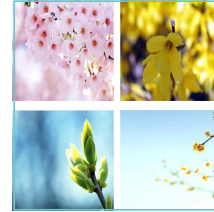
개역개정판 성경과 21C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낮예배	주일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주일 오전 9시
삼일밤예배	수요일 오후 7시30분
민들레주부목상모임	금요일 오전 10시
목상나눔모임	나눔터별 경향시간
화요성경학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광양사랑의교회가 후원하는 곳

국제비전선교회 김경식선교사(스리랑카) SU 에스라



GwangYang SARANG Church | kysarang.org

• 광양사랑의교회 이야기 •

Since 2003MCC 2007GSC 제12권14호

부활주일 2015년4월5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
GWANGYANG SARANG CHURCH
사랑합니다! I LOVE YOU



눈뜨는 감나무 새순들이 위아하하다
알고 보면 그 밑고 나오는 힘이 역만 툭툭 된다는 것인데
아기를 낳은 여자, 그 죽을 직전,
직전의 직전까지 닿아 있는 힘과 같다는 것인데
햇살 속에 반짝이는 저 몸짓들이 왜 저리 연하디 연할까
다를 게 없다 가장 험준 것은 가장 여린 것을 겨우 만들어낸다
역만 톤의 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처음부터라야 완벽하다 위험하다 _정진규, 알詩, 세계사, 1997



사랑의 전도편지

영원한 생명의 꽃 예수

“아니, 벌써? 아, 아깝다!” 며칠 전 하늘을 하얗게 뒤덮은 벚꽃을 보며
언제 저렇게 예쁘게 피었나 했는데 오늘 한낮의 거리엔 연분홍 핏기도
채 가지지 않은 꽃잎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폭설의 겨울을 지나 앙칼진 꽃샘추위가 끝나자마자 언 몸을 녹여주고
향긋한 휴식으로 미소 짓게 하던 예쁜 꽃들이 어쩔 이리도 성급하게
사라지려 하는지 아쉬움이 가득 밀려왔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찾아올 색색의 향연에 비하면 다소 초라한 듯하지만
긴긴 겨울 동안의 기다림 때문인지 봄꽃은 유난히 반갑고 그 만개한 시간이
더욱 짧게 느껴집니다. 봄꽃과의 짧은 만남은 덧없는 인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잠깐 피었다 지는 들꽃으로 인생을 비유한
성경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쓴 삶과 같이 순간뿐인 인생을 위해 헛되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라고 하십니다.

엄마의 항암투병을 도우면서 그렇게 밝고 매력적이던 분이 떨어진 꽃잎처럼
시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늘 새벽예배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말없이 봉사에 앞장서던 분이 몸이 무너지니 마음도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던 생기 넘치던 엄마,
언제나 내 편이 되어 나보다 더 나를 믿어주던 절대 긍정의 엄마가 하나둘
떨어지는 봄꽃처럼 스러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화려함과 강함은
얼마나 덧없는 한 순간일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쇠할지라도 영혼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봄꽃이 지면 더 뜨겁고 강렬한 생기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육체는 시들어도 영원한 생명의 꽃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 글쓴이 장주연 ☺

“예배”는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 부활감사예배

주일오전 11:00

경배와 찬양	10시45분부터 찬양합니다	다같이
예배의부름	찬25장 면류관 벗어서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참회의기도	영광송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절만	다같이
목회기도		인도자
찬양	찬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다같이
말씀선포	마가복음 16:1~8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라종렬목사
결단&합심기도	찬159장 기뻐 찬송하세	다같이
성찬성례전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축도(강복선언)		인도자
나눔&환영		성도의교제

주일오후찬양예배

주일 오후2시
주기도문 6 _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7:30
묵상나눔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30
마가복음
빌립보서 강해

• 나눔&환영 *Sharing & Welcome*

■ 4월 주일낮예배 대표기도자 안내 ■

1주:목회기도 / 2주:박형순집사 / 3주:박한성집사 / 4주:장경하집사

- * 새가족 환영 :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 * 모임안내 _ 다음 주일 오후에는 코이노니아 주일로 모임입니다.
- * 꼭 매일성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 묵상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 기도제목
- 서성님집사님의 딸 수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 교회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디아코노이(섬기는 사람들) 묵상나눔 모임
- 매주 수요일 오전10~12시 본교회에서
- * 책사랑(冊舍廊) 슬로레(Slow-Slow Reading)모임 안내
- 매주 목·저녁, 금·오전에 진행되는 천천히 읽기 모임

